

# 서울대학교 2019 통일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기관명	사업명	유형 (A,B,C)	소요액 (백만원)
인문학연구원 한국어문학연구소	남북 연결 철도 '경원선'과 한국문학	C형	25

## 1. 사업 배경

### □ 개요

- 사업명: 남북 연결 철도 '경원선'과 한국문학
- 기관명: 인문학연구원 한국어문학연구소
- 사업비: 25,000,000 원
- 사업기간: 2019.4.1.~2020.2.28.
- 사업책임자: 방민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철도' 남북한 연결 철도 '경원선'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 10월부터 1914년 8월에 걸쳐 총 223km에 걸쳐 만들어진 철도 노선이다. 분단 이후에는 용산에서 신탄리까지 89km로만 운행되었지만, 지난 2012년 11월 20일, 백마고지역(남한 지역의 최북단역)이 재운영을 시작하면서 현재 용산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94.4km가 운행 대상이다. 특히, 2000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경원선 복원이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오늘날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담은 판문점 선언 1조 6항(2018년 4월 27일 공표)이 발표된 이후, 남북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바탕으로 문학 연구 분야에 기여할 구체적인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본 프로젝트 <남북 연결 철도 '경원선'과 한국문학>을 기획

하게 되었다.

<자료 1. 남북 철도 연결 예상 노선>



<자료 2. 경원선의 현재 운행 구간 (총 41개 역)>

용산 ⇨ 이촌 ⇨ 서빙고 ⇨ 한남 ⇨ 옥수 ⇨ 응봉 ⇨ 왕십리 ⇨ 청량리 ⇨ 회기 ⇨ 외대앞 ⇨ 신이문 ⇨ 석계 ⇨ 광운대 ⇨ 월계 ⇨ 녹천 ⇨ 창동 ⇨ 방학 ⇨ 도봉 ⇨ 도봉산 ⇨ 망월사 ⇨ 회룡 ⇨ 의정부 ⇨ 가농 ⇨ 녹양 ⇨ 양주 ⇨ 마전(신호장) ⇨ 덕계 ⇨ 덕정 ⇨ 지행 ⇨ 동두천중앙 ⇨ 보산 ⇨ 동두천 ⇨ 소요산 ⇨ 초성리 ⇨ 한탄강 ⇨ 전곡 ⇨ 연천 ⇨ 신망리 ⇨ 대광리 ⇨ 신탄리 ⇨ 백마고지

### ○ 목적

-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기존의 북한문학 연구는 대개 북한 노동당의 정책이 어떤 형태로 문학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별 작품의 의미를 검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 이에 반해, 본 연구팀이 시도한 「남북 연결 철도 '경원선'과 한국문학」 프로젝트는 경원선 및 그 인근 지역과 한국문학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문학 작품들 중에서도 산문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해 분석하는 것으로 지역성과 문학이 어떤 형태로 관계 맺는가를 새롭게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 남북한 통일, 통합을 위한 인문학적 기반 구축하고자, 특히 '경원선'이라는 구

체적인 역사적 '실재'를 매개삼아 통일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새롭게 환기하고자 하였다.

- 사회적 측면에서, 본 연구 및 콘텐츠 제작 사업은 한국의 분단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적 측면에서, 북한문학연구의 방법론을 새로이 모색함으로써 한국현대문학사의 새로운 담론의 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문학적 측면에서, 문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물론, 문학/문화 분야를 포괄하는 키워드로서 '경원선'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지역학적 한국문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킨다.
- 남북한 연결을 지향하는 문학 분야의 구체적 콘텐츠 생산: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기까지 산문 텍스트 중 경원선을 소재로 삼거나 배경으로 삼은 주요 텍스트를 발굴하여 현대어로 번역해 '산문집' 형태로 출간하고, 동시에 동시대 문학인의 참여 하에 '경원선'을 소재로 한 공동 소설집을 새로이 출간한다.

## 2. 사업 내용

### □ 사업 추진 내용

- '경원선'이라는 역사적 주요 소재를 통해 평강, 함흥, 원산 등에 나타난 한국문학 작품 중 특히 산문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동시대 문학인들의 다양한 지역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를 통해 남북이 공유하는 문화적 기반을 확인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한국 문학의 주요 작가인 한용운, 이광수, 이상협 등의 산문을 통해서 경원선과 금강산이 당대의 한국문학에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한국문학과 지역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탈북자, 연변동포 등의 텍스트를 한국문학의 범주로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진행함
- 경원선을 소재삼아 남북한 문인들의 공동 참여 하에 새로운 소설 창작
  - 남북한 각 지역에서 실제 거주 경험을 지닌 문학인들의 참여로 '경원선'을 소재로 한 '공동 소설집'을 출간
  - 결과물로서 공동 소설집 『원산에서 철원까지』(예옥, 2020)를 발간함
- 일제강점기 및 해방기 경원선 관련 산문 텍스트를 수집하여 체계화해 자료집 제작

-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기 시기 '경원선'을 소재로 삼거나 배경으로 삼은 산문 텍스트 중 주요 연구 대상을 선별하고 현대어로 번역하여 '산문집' 형태로 출간
- 결과물로서 자료집 형태의 단행본 『경원선 산문집』(예옥, 2020)을 발간함

###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19.04~2019.08	- 경원선 관련 이야기를 담은 '공동 소설집' 출간을 위한 작가 모임 및 기획 회의 - 일제 강점기 및 해방기 경원선 관련 '산문 텍스트' 자료 수집 및 체계화
2019.09~2019.10	- '공동 소설집' 참여 작가에게 원고 청탁 - 수집한 '산문집' 자료 현대어로 번역 작업 및 추가 자료 검토
2019.11	- 2019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 참가 - '공동 소설집', '산문집' 출간 작업 중간 점검
2019.12	- '공동 소설집' 참여 작가들의 완성 작품 취합 - '산문집' 자료들 분석 및 분류, 관련 자료 추가 확보
2019.12~2020.01	- '공동소설집' 작품 교정 교열 및 출간 준비 - '산문집' 작품 선별 및 번역 작업 마무리
2020.02	『경원선 산문집』(예옥, 2020), 『원산에서 철원까지』(예옥, 2020) 출간 (예정)

### 3. 사업 성과

#### □ 사업 성과

- ‘경원선’ 인근 지역들에 대해 일제 강점기 및 해방 공간 시기에 문학인들이 남긴 다양한 형태의 산문 텍스트들 중 주요 텍스트를 선별, 현대어로 번역하고 체계화하여 정리한 결과물을 『경원선 산문집』(예옥, 2020)으로 출간하여 북한 지역에 관한 한국 사회의 대중적 관심을 환기함.
- 그동안 탈북문학인들과 한국문학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 소설집을 수차례 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원선’을 소재로 한 공동 소설집 『원산에서 철원까지』(예옥, 2020)를 출간함.

	원고제목	저자	매수
1	열차에서 만난 손님	김유진	92
2	강원선	도명학	83
3	노병의 아내	김정애	83
4	열차표	설송아	87
5	동맥	장해성	115
6	침묵	이지명	104
7	‘북한 작가들의 철도 이야기 소설집’을 펴내며	방민호	65

#### □ 관련분야 기여도

- 본 사업은 북한 문학 연구의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한국문학사의 새로운 연구의 장을 생성하고자 하였다. 한국현대문학 분과가 한국의 분단 현실을 학술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북한문학의 과거를 살피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는다. 기존의 북한문학 연구는 북한 체제의 정책 변화와 문학 작품의 연관 관계, 『조선문학』, 『청년문학』 등 이른바 기관지 문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러한 연구 경향을 보완하고자 본 사업은 경원선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들이 한국문학에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을 중심으로 일종의 지역학적 관점으로 새로운 문학 연구 방법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 5. 자체평가

####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본 사업은 남북한 통일, 통합을 위한 인문학적 기반을 새로운 관점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한국현대문학 연구에 있어 ‘북한학’의 방향 전환 및 남북한 연결을 지향하는 구체적 문학 콘텐츠 제작 작업을 진행하였다.
  - 기존 계획에서는 ‘경원선과 한국문학’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원탁 토론 형식의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문집과 소설집 등 콘텐츠 제작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사업 내용을 일부 정정하게 되었다.
- 사업의 효율성
  - 경원선은 일제 강점기 및 해방기 문학/문화인들에게 산문 텍스트의 대상으로 빈번하게 다뤄진 철도 노선 중 하나이다. 따라서 경원선과 한국문학의 관련성을 새롭게 보고자 시도한 본 사업은 한국문학의 지역학적 양상을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장에 기여할 것이다.
  - 또한, 남북한 각 지역에 경험 거주가 있는 문학인들의 참여로 발간된 공동 창작 작품집은 한국문학의 소재적, 주제적 영역을 확장시키고 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새로이 환기하는 역할을 해낼 것이다.
- 사업의 영향력
  - 본 사업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경원선 산문집』(예옥, 2020), 『원산에서 철원까지』(예옥, 2020)는 한국의 분단 상황에 대한 관심을 철도라는 지역성을 띤 소재를 중심으로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분단된 국토의 상징으로서 절단된 경원선의 과거와 현재를 문학 텍스트를 통해 드러내고 남북통일을 향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의 발전가능성
  -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 가운데 하나인 ‘철도’는 국토의 연결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읽힐 수 있다. 특히, 경원선은 남과 북을 잇는

가장 중요한 연결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북 분단을 상징하듯 ‘절단’ 상태에 놓여 있어 문제적이다. 본 연구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검토한 경원선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다음 사업으로 경의선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획 중이다. 경의선 역시 남북 문학인들의 다양한 관심을 요하는 철도로 향후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연구 대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본 사업의 결과물로 『경원선 산문집』 (예옥, 2020), 『원산에서 철원까지』 (예옥, 2020)가 나오게 되었으나, 출판 마무리 작업을 위한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확인되어 예상 출간 시기였던 2월 마지막 주보다 2주 정도 출간이 연기되게 되었음. 향후 사업에서는 이러한 오류 경험을 참고하여 일정 내 작업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계획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이후에도 근대 문학 및 사상사적 거점이 되는 북한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학적 연구 시각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계획임.
- 본 사업에서 집중하였던 ‘경원선’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북한의 지역학적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통일 관련 학술계 제반에 새로운 담론 장을 생성하고자 함.
  - 남북의 공통성을 확인하고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경로 마련
  - 한국 문학적 유산을 살펴봄으로써 남북의 공통 관심사를 검토
  - 문학을 통해 통일의 의의를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한국 문학의 전통을 다양한 지역의 문학적 유산과 문인들의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문학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자 함
- 본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경의선 문학기행’ 테마 산문집을 발간할 예정.
  - 신의주등 서북 지역을 기반삼은 한국문학의 대표 문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문학사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이 기획은 문인들의 삶과 작품을 통해 북한 지역을 살펴봄으로써 남북의 문화적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됨

- 일제강점기와 함께 시작된 철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남북한 공통적인 역사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시도



- 후속 작업으로 한반도의 서쪽을 잇는 ‘경의선’을 따라 서울을 시작으로 개성, 사리원, 평양, 신의주에 이르는 지역의 의미를 한국 문학을 통해 탐사하고자 함 (경의선은 서울을 기점으로 개성-사리원-신안주를 거쳐 우리나라 관서지방을 관통하는 종관철도(총연장 499km)로, 1905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륙침략의 목적으로 부설되었다. 1945년 현재 경의선은 모두 63개 역으로, 대동강, 평양, 간리, 정주, 광산, 선천, 백마, 남신의주, 신의주 등 북한의 주요 지역을 지난다. 대동강과 평양은 주요한의 시와 김동인의 소설, 간리역은 탈북작가 도명학의 소설, 정주와 광산은 김소월의 시, 남신의주는 백석의 시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다. 산문과 함께 주요 문학작품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북한 지역을 탐사하는 듯한 문학 여행을 선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문화적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 『경원선 산문집』 (예옥, 2020)
- 『원산에서 철원까지』 (예옥, 2020)
- \*\*\* 원문은 3월 15일 제출 예정.